

‘초청선수’ 히고, PGA 팰머토 챔피언십 우승

22세 개릭 히고(남아프리카공화국)가 14일(한국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리지랜드의 풍가리 골프클럽(파71)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팰머토 챔피언십(총상금 730만 달러·81억5000만 원) 최종 4라운드에서 3타를 줄여 최종합계 11언더파 273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한 개릭 히고. AP뉴시스

초청선수로 참가한 히고는 PGA 투어 두 번째 대회 출전에서 깜짝 돌풍을 일으키며 우승상금 131만4000달러(14억7000만 원)와 함께 2022~2023시즌까지 PGA 투어에서 활동할 수 있는 투어 카드를 손에 넣었다. 2021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출전권도 획득했다. 임성재는 3언더파 공동 35위에 올랐다.

알립니다

스포츠 취재 경력기자 모집

스포츠동아가 대한민국 스포츠 미디어를 이끌어 나갈 스포츠 분야 취재 경력기자를 모집합니다.

2008년 창간한 스포츠동아는 1등 스포츠신문으로 우뚝 섰습니다. 2018, 2019, 2020, 2021년 한국ABC협회의 발행부수와 유료부수 평가에서 스포츠신문 1위, 일간신문 8위로 공식 인증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스포츠 발전과 함께 성장해 온 스포츠동아는 젊은 인재와 함께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스포츠동아와 동행할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모집 부문 : 스포츠 취재(축구 농구 아마추어 스포츠 등) 경력기자 0명
- 지원 자격 : 신문사, 통신사, 인터넷언론 등 경력 3년 이하
- 전형 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대상자 개별 통보)
- 제출 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명 기사 5건(hwp, doc 파일, PDF로 제출)
- 접수 기간 : 2021년 6월 14일(월)~25일(금)
- 접수 방법 : 이메일 ten06sy@donga.com
- 문의 : 스포츠동아 경영기획실 02-361-1608

막 내린 'LPGA 메디힐 챔피언십'

공동3위 유소연 "3·4R 노보기 플레이 만족"

태극남자 중 최고 성적...자존심 지켜 "후원사 회장님 응원, 진심으로 감사 다음주 대회 출전 않고 스윙 손 볼 것"

3월 기아클래식 박인비(33), 4월 HSB 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김효주(26)에 이어 메디힐 챔피언십에서 '시즌 3승'에 도전했던 한국여자 골프군단이 아쉽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개인 다승을 노렸던 박인비와 김효주 그리고 3라운드까지 공동 4위에 올라 역전 우승의 희망을 키웠던 김아림(26), 2019년 이 대회에서 우승해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나선 김세영(28) 모두 톱10 진입에 실패했다.

태극남자 중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는 유소연(31)이었다. 14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데일리시티의레이크 머세드 골프클럽(파72)에서 끝난 미국여자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디힐 챔피언십 최종 4라운드에서 단 하나의 보기 없이 버디만 5개를 잡아 5타를 줄였다. 최종합계 8언더파 280타로 한나 그린(호주)과 공동 3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의 전문 화장품 기업이자 대회 주최사인 엘앤피코스메틱이 운영하는 메디힐 골프단의 2017년 '창단 멤버'이기도 한 유소연은 후원사 개최 대회를 앞두고 "꼭 우승하고 싶다"고 의지를 다졌지만 지난 5월 혼다 LPGA 타이랜드(공동 3위)에 이어 시즌 개인 최고 성적을 거둔데 만족해야 했다.



우승은 놓쳤지만 3~4라운드 이를 동안 '노보기 플레이'를 펼쳤다. 2011년 US여자오픈 등 메이저 2승을 포함해 LPGA 투어 통산 6승을 수확한 전 세계랭킹 1위다운 안정감이 돋보였다. 유소연은 "주말에 보기 없는 라운드를 해 너무 기쁘다. 마무리를 잘 해 톱10으로 끝낼 수 있어 기분이 좋다"며 "다음 주(마이어 클래식) 대회에는 출전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면서 스윙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엘앤피코스메틱 권오섭) 회장님과 관계자 분들께서 항상 후원해주시고 응원해 주시는데, 후원사 대회에서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며 "만족스러운 한 주가 됐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유소연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신지은(29)이 4라운드에서 2타를 줄이며 합계 7언더파 공동 5위에 랭크 돼 톱10 진입에 성공했다. 김아림은 1타를 잃고 5언더파 공동 13위에 자리했고, 박인비는 이븐파를 마크해 2언더파 공동 29위에 위치했다. 김세영은 1언더파 공동 34위, 김효주는 3오버파 공동 57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김도원 기자 dohoney@donga.com

메디힐 챔피언십에서 한국여자 골프군단이 전체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유소연이 공동 3위에 오르며 태극남자의 자존심을 세웠다. 유소연은 대회 주최사 엘앤피코스메틱이 운영하는 메디힐 골프단의 창단 멤버이자 간판 선수다. AP뉴시스

'메디힐 챔피언십' 2승 도전자 6명 모두 실패... '절대강자'란 없다

투어 13명 우승자 중 첫 승 4명 '뉴페이스들의 반란' 흥미진진

2021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13번째 대회 메디힐 챔피언십이 14일(한국시간) 마틸다 카스트렌(핀란드)의 우승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를 통해 확인된 올 시즌 LPGA 투어의 트렌드는 두 가지다. '절대 강자'가 없고, '새 얼굴'의 힘이 세다는 점. 13개 대회 우승자 면면이 모두 다를

정도로 올 시즌은 '절대 강자'가 없다. 메디힐 챔피언십에는 박인비 김효주(이상 한국), 페티 타와타나깃(태국), 브룩 헨더슨(캐나다), 리디아 고(뉴질랜드), 수웨이링(대만) 등 올 시즌 우승 경험이 있는 6명 선수가 출전해 시즌 2승에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이들 중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이는 공동 9위의 리디아 고였다. 4명은 톱10 진입에 실패했고, 헨더슨은 1라운드에서 5오버파를 친 후 아예 기권했다. 시즌 첫 다승자가 나온 시점(대회 수

기준)을 돌아보면 올 시즌 '절대강자'가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시즌 첫 다승자인 대니엘 강(미국)은 6번째 대회에서 2승에 성공했고, 2019년 첫 다승자인 고진영(한국)은 8번째 대회에서 멀티 우승을 달성했다. 2018년 첫 다승 주인공은 14번째 대회의 에리아 쭈타누간(태국)이었는데, 올해 페이스는 이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눈여겨볼 또 하나의 포인트는 새로 윤 얼굴의 연이은 등장이다. 13명 우승

자 중 LPGA 투어 첫 승을 거둔 이는 무려 4명. 카스트렌이 4번째 주인공이다. 그에 앞서 4월 ANA 인스퍼레이션 챔피언 타와타나깃, 5월 퓨어 실크 챔피언십 우승자 수웨이링, 그리고 지난 주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였던 US여자오픈에서 깜짝 우승을 차지했던 유카 사소(필리핀) 역시 데뷔 첫 우승자였다. 전체 시즌 일정의 3분의 1 이상을 소화한 가운데 역대 어느 시즌보다 '젊은 피'의 힘이 센 2021년이다. 김도원 기자

라이터크기 초소형 녹음기 테잎없이 연속 260시간 녹음 일반대화, 강의녹음, 설교녹음, 증거녹취 각광... 거짓말, 딴소리 사실왜곡 꼼짝마! 녹음을 생활화하면 문제가 술술 풀린다.

최근 테이프 없이 장장 260시간이나 녹음을 할 수 있는 라이터 크기의 초소형 녹음기가 출시되어 소비자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초소형 녹음기 전문업체인 국제종합물산(주입문의:080-232-5866)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이 제품은 국내시장은 물론,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도 주문이 쇄도, 각광을 받고 있다. 초소형 녹음기는 1회용 라이터크기만해 각종회의 세미나, 강의, 수업, 증거녹음 설교녹음 등 사용처가 무궁무진해 현대인들에게 필수품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일반 대화녹음은 물론 전화 및 핸드폰도 매우 깨끗하고 선명하게 녹음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카세트녹음기나, 컴퓨터 등에도 음성을 옮겨 영구히 저장 할 수 있고 필요한 내용만 편집을 할 수 있어 사업가, 자영업자, 학생, 회사원, 종교인, 주부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비즈니스 거래상 호주머니에 넣고 녹음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대화내용을 선명하게 녹음 할 수 있어 각종 계약 및 거래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을 제압하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중요한 구두계약이나 사업상 거래에서 대

화내용을 들었던 증인이 없으면 아예 계약내용을 전면 부인하거나 '딴소리', '거짓말', '오리발', '사실왜곡' 등을 해 당황하게 하는 일이 허다하여 발만 동동 구르고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보아 왔다. 이럴 때 대화내용을 녹음해 놓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제품은 증거녹음 강의녹음 등에 진가를 발휘해 소비자들의 인기를 독차지 하고 있다. 주요기능은 음성감지기능(소리가 나면 녹음이 되고 소리가 나지 않으면 정지 대기 비밀녹음시 유용),반복재생기능,자체 스피커로 들을수 있는 기능,녹음시간 표시기능,삭제기능,음량조절기능,이러온 사용기능,유선전화 핸드폰 녹음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또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어른들도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되어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중요한 대화녹음 분쟁을 방지한다

농협 : 511-12-185903 (예금주 : 고봉석)

문의 ☎ 080-232-5866 국제종합물산

인테리어

카페, 커피숍 10~20% 특별 할인

★유럽형 외부 인테리어 ★실내 유럽형 궁전 분위기(화이트)

★전국 고급주택, 아파트 리모델링 상가, 식당 및 영업장 (지방 출장 무료 견적 가능)

디자인그룹 **원기획**

010-8894-4099 / 070-8917-8467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290-6